

6장 본장에서는 친구 엘리바스의 변론에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답변합니다. 욥의 답변을 보기에서 세 가지 찾아보세요.

- 1) 하나님을 찾겠다.
- 2) 거룩한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 3) 내 혀에 불의한 것이 없다.
- 4) 아직 나의 의가 건재하다.

5월11일 목요일

7장 욥의 탄식을 통해서 그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내 삶에는 ()와 ()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구나."

8장 빌닷은 욥의 아들이 죽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단정 지어 말하나요? (4절)

9장 욥은 본장에서 자신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고난을 도무지 해석할 길이 없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구절들을 3가지 이상 써 보세요.

10장 본장 2절에서 욥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었던 2가지는 무엇인가요?

5월12일 금요일

11장 소발은 하나님의 크심이 '이것'보다도 길고 넓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 1)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
- 2) 수명, 땅
- 3) 땅, 바다
- 4) 땅, 하늘

12장 욥은 지혜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욥은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지혜와 권능과 모략과 명철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나요?

13장 본장 20-27절에 기록된 욥의 기도의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 1)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 2)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
- 3) 나의 허물과 죄를 알게 하옵소서.
- 4) 내 발을 차꼬에 채우지 마시고, 나의 발자취를 점검 하지 마소서.

14장 욥은 인간의 연약함을 탄식 하면서,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두 가지 비유로 표현합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5월13일 토요일

15장 욥이 겪는 고난을 위로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죄의 결과로만 단정 짓고 판단자의 위치에서 정죄하는 엘리바스는, "너를 ()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16장 욥은 엘리바스의 허망한 말에 대해 질책하면서, 친구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2절)

17장 욥의 육신이 약해질대로 약해졌음을 알 수 있는 고백으로, 욥은 자신의 눈이 무엇으로 인하여 어두워졌다고 하나요?

18장 본장에서 빌닷은 욥을 아예 불의한 자,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취급합니다. 그것을 몇 절 말씀에서 알 수 있나요?